제 1544 호 1991년 11월 24일 창간 2021년 9 월 19 일

§교 회 목 표§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21년 표어§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스 10:1, 12, 행 3:19-21)

†행 동 지 침†

1. 약속의 말씀 위에 다시 세워지는 서울교회!
2. 믿음의 계대 이루어 미래를 열어가는 서울교회!
3.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서울교회!

발행인 : 손달익 목사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 www.seoulchurch.or.kr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예배

한 해의 결실을 감사하며 모처럼 한자리에서 만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지게 되는 추석.

가족이 한자리에 모일 때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족 주심을 감사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써 전도의 기회를 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여기에 예배 모범을 제시한다.

"주를 찬양하고 신뢰하라"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묵 도			다함께
성 시		시 133:1-3	인도자
찬 송		589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다함께
성경봉독		시편 33:1-5	인도자
메 시 지		"주를 찬양하고 신뢰하라"	인도자
찬 송		559장	다함께
주 기 도 문			다함께

(시편 33:1-5)

1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3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4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5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심이여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요 그들의 역사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인들이라면 누구나 불러야 할 찬송입니다. 인간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찬송하는 일은 모든 성도의 의무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히 할 바입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아 지금까지 지켜 주시고 만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돌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1. 무엇으로 찬양해야 할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양해야 합니다. 날마다 새롭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열 줄 비파 즉 각종 악기와 각양 은사를 따라 찬송해야 합니다(느 12:27).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깊은 음으로, 높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높은 음으로, 넓은 은총을 받은 사람은 진폭이 넓은 음으로, 평범한 은혜를 받은 자는 중간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노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찬송하는 자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고 가사를 음미하면서 자신을 드리는 심정으로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향기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2. 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예배하고 그에게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그의 일은 모두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동시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매 맞는 날보다 평안한 날이 더 많은 것은 하나님 사랑의 승리입니다. 공의로우시나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같은 눈으로 그의 백성을 감찰하시며 그의 눈은 그를 경외하는 자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온 자들이요 죄인이었으나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좋은 것을 필요를 따라 넉넉히 주시니 우리는 큰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3.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우리는 옛부터 도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스펄젼의 주석에는 대서양을 횡단하던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파선 지경에 이르렀으나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은 한 소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소년은 의아해하는 무리들에게 "이 배를 지휘하는 선장은 내 아버지며 나는 그를 믿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에게 우리 삶을 온전히 맡길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신뢰함으로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는 복을 모두 누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손달익 목사 순례자 대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 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다시 교회로(Rebuild),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 -

2021년 5월 16일(주일) 제직회를 통해 서울교회 3대 담임목사로 청빙 된 손달익 목사님은 강남노회의 행정 절차를 거쳐 7월 30일(금) 정식으로 서울교회 3대 담임목사가 되었고 지난 9월 5일(주일) 공동의회의 투표를 통하여 위임목사로 청빙되었다. 위임식은 11월 21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을 예정이다.

순례자는 그동안 설교를 통해서만 성도들과 소통하였던 목사님을 만나 성도들을 대신하여 다음의 8가지 질문을 통하여 서울교회 위임목사로서 어떤 목회비전과 목회철학으로 서울교회를 이끌어가실지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Reconfirm'
복음주의 신앙노선을 재확인하여
다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자

'Rebuild'
다시 교회로 모여
영광스러운 서울교회를 재건하자

'Rejoice'
서울교회 공동체의 미래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자

1. 공동의회를 통해 서울교회 위임목사가 되신 것을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간단한 소감을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교회가 저를 위임 청빙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임 청빙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교회의 신뢰와 기대를 담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 신앙적 자부심을 갖게 됨과 동시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게 합니다. 물론 제가 서울교회에서 목회를 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아서 담임목사건 위임목사건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짧은 기간이라도 교회의 신뢰와 위탁을 받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 자신에게는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서울교회가 처해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혹은 교단의 지도자의 입장에서 보아왔다고 한다면 이제는 서울교회가 내 십자가가 되고 내 사명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거룩한 부담감이 느껴집니다.

2. 목회의 길을 가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지요? 하나님의 calling은 언제 받으셨나요?

우리 가문은 본래 신앙인의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친가와 외가를 합해 제가 우리 집안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어렴풋이 어린 시절 동네 교회의 주일 학교도 가고 여름성경학교도 갔던 기억이 있지만 신앙인으로서의 자의식을 가지고 믿은 것은 중학생 때였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calling을 받게 된 것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수련회에서였습니다. 그때 저를 신학의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은 당시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의 교목이셨는데 그분이 제 평생의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철저한 유교 집안에서 태어난 제가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집안에서 얼마나 반대가 심했는지 문중에서는 우리 집안이 망했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학교의 교목이신 목사님께서 신학교의 길과 목사가 되는 길을 잘 안내해 주셨습니다.

3. 자신만의 목회 철학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회를 하며 크게 세 개의 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복음주의 신앙고백입니다. 목사는 목회나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는 사역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설교할 때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일절 가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이것은 저의 복음주의 신앙고백에서 나온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둘째는 교회의 일치와 화평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공동체라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몸으로 계시는 것처럼 교회의 지체들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5년간 목회를 하면서 충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스펀지처럼 많은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했고, 신축성 있고 의연한 사고를 갖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능한 많은 성도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교회의 화평을 실천하는 것이 가장 큰 선교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이런 생각과 신앙고백이 서울교회의 부름에 응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회적 공공성입니다. 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건설되기 전까지는 죄 많은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 속에 존재하는 교회는 공공의 유익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서울교회는 한 마디로 어떤 교회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서울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서울교회에 대한 정보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교회에 부임하고 약 100일 정도를 지나면서 지금의 서울교회는 잠에서 깨어나는 거인, 또는 사자와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지난 4-5년 동안의 혼란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상처와 고통을 주었지만 동시에 갱신될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손실이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서울교회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나 그간의 축적된 경험들과 원로목사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적 훈련들을 토대로 큰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너진 것들을 어떻게 다시 수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분명 있을 것이라고 믿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나아가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리라 믿습니다.

5. 서울교회의 새로운 캐치프레이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를 선정하시고 3R-다시 말씀 앞에(Reconfirm), 다시 교회로(Rebuild), 모두 함께 기쁨으로 (Rejoice)-를 부제로 선정하셨는데 이에 설명과 비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라는 캐치프레이즈는 교역자들과 함께 의논하여 정한 것입니다. 교역자들이 각자의 신앙고백을 바탕으로 굉장히 좋은 표어들을 많이 제출하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취합하여 신앙

의 기본적인 출발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인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나아가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 사회적 약자도 포함됩니다. 3R의 Reconfirm은 복음주의 신앙노선을 재확인하여 다시 믿음 가운데 굳게 서자는 의미이고, Rebuild는 다시 교회로 모여 예전의 영광스러운 서울교회를 재건하자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Rejoice는 서울교회 공동체의 미래상을 꿈꾸며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로 정했습니다.

6. 서른 살 서울교회가 앞으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서울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궁무진하지만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교회학교의 재건입니다. 지난 5년간 우리는 교회를 지키느라 투쟁하였고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다음 세대에게는 치명적인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교회를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게 되었을 것이고, 지역 사람들에게도 믿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다는 신뢰감에 흠집을 주었을 것입니다. 교회학교의 붕괴 내지 축소는 한국교회 전체의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교회학교가 지금의 교회학교 모습을 시급하게 고치지 못하고 이 모습이 그대로 굳어져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1969년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이 "민주주의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교회학교의 재건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적 인프라를 확보하고 교회학교의 시설 또한 밝은 환경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 의식을 정상화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일로 위축되지 말고 상가나 지역에 나가 당당하게 교회를 소개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교회는 이종윤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정통성과 경건한 예배 의식 등 굉장히 소중한 신앙 유산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적 자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서울교회에서 목회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 이제 젊은 목사님이 새로 오시는 시간 동안 교회를 정상화 시키고 변화의 완충작용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서울교회 성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간 일 때문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정상적인 교회생활,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틀을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역자들이나 장로님들께서 성도들이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고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긴 시간 동안의 교회 분쟁이 코로나 펜데믹으로 이어지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께서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분량의 십자가를 감당해 달라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삶에 주름살이 패이고 여러 부분에서 침체되어 있겠지만 오직 신앙의 능력으로 이겨내시며 다시금 허리띠를 동여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당부드립니다.

8. 최근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무엇보다 서울교회의 정상화가 가장 큰 기도 제목입니다. 교회 정상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루빨리 한마음이 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아픔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나간 분쟁은 우리 모두가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다른 교회들에게 보이지 않는 피해와 근심을 준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겸손해지기를 기도합니다.

둘째는 한국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을 겪으면서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받는 불신의 폭이 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물론 교회에 대한 오해도 있고 의도적인 교회의 흠집 내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기적이고 비지성적이라는 사회적 지탄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사회 속에서 교회가 재정립되고 선한 영향력을 키워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셋째는 가정의 기도 제목입니다. 신학의 길을 가고 있는 두 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손달익 목사님은 아내 박영숙 사모님과의 슬하에 2남을 두고 있다. 두 아들 모두 신학을 전공하여 장남은 멕시코 선교사로 헌신하며 멕시코 장신대와 멕시코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으며 차남은 신학자로서 대학에 몸담고 있다.

이날 동석한 박영숙 사모님은 "서울교회의 청빙 제안을 받고 처음에는 분쟁이 있는 교회라 선뜻 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기도 가운데 분쟁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손 목사님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독거리고 교회를 회복시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자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 목사님의 뜻을 따라 서울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지난 35년 동안 목회했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이 없었기에 이번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서울교회에 왔습니다. 다만 손 목사님이 서울교회에서 목회할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계획했던 바를 실행할 수가 없어서 마음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어떻게든지 교인들과 빨리 친숙해지고 싶고, 분쟁으로 인한 상처를 위로해 주고 싶은데 얼굴을 대면할 수도 없고 심방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이렇게 지나가는 하루하루가 참으로 안타깝고 아쉽기만 합니다"라고 하였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눅 9:62)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 안에서 기뻐하는 성도로 거듭나 개인적으로는 정체되었던 신앙의 행보를 당당하게 하고, 교회적으로는 멈추어졌던 하나님의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하나님을 더 크게 사랑하고 이웃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대담 참석자: 차도훈 장로, 허숙 권사,
김애리 집사, 유은경 집사
정승균 집사
·정리 : 허숙 권사
·사진 : 유은경 집사, 정승균 집사

기쁘고 은혜로운 추석이 되도록

추석 명절이 시작되어 전국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작년부터 전 세계를 두려움과 위험에 빠뜨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전 국민이 어려운 가운데에 처하였고 예배의 정상화도 요원한 상태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바랄 것 없는 민족에게도 긍휼을 잊지 않고 베푸시어 추수할 곡식과 과실을 남겨 주셨다.

교회는 이번 추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본지 1면에 추석 가족예배의 모범을 게재하였다. 친인척을 만날 수 있는 성도들은 귀한 전도의 기회로 삼고 이번 추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도록 기도한다.

2021 사명자대회

서울교회여, 일어나 함께 가자 !

2021. 10. 10(주)-11.28(주) 50일간
특별새벽기도회 : 11. 22(월)-11. 27(토) 새벽 5:00-6:00
강사 : 손달익 담임목사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0)

교회설립 기념 주일까지 50일 동안 계속되는 2021 사명자대회가 10월 10(주일)부터 5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한다.

사명자대회 기간동안 매일 교회성경통독 일정에 맞춰 말씀을 읽고 매일 자율기도에 맞춰 자율적으로 기도하며 매일 낮 12시, 3분 이상 50일간 기도한다. 특별히 2021 사명자대회 기간동안 1인 1사랑의 실천을 한다.

교회설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주님 안에서 온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주시는 말씀을 받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헌금을 위한 봉헌 계좌

서울교회 통장계좌는 다음과 같다.

* 신한은행 대치동지점
  100-034-868968 (대한예장 서울교회)

광 고

신속한 교회 행정을 위하여 이사 등 주소 변경 시는 즉시 사무국이나 교구목사에게 알려주시기 바란다.

다락방 교육 ·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2차 교육 휴강

추석 연휴 관계로 다랑방 교육 · 2021년 피택집사 및 피택권사 교육은 휴강한다.

2021 성경암송대회

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2021 성경암송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일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많은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

· 암송범위 : 요한계시록 1-5장
· 일반부 본선 : 10월 30일(토) 오후 2:00
· 교회학교 본선 : 10월 31일(주)

* 부별 대상 수상자는 10월 31일(주) 찬양예배시에 암송할 예정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청년들 중, 군에서 복무 중이거나 입대 예정인 청년과 대상 청년의 가족을 비전2020 도고팀에 알려주기 바란다.

군대에 있는 동안 좋은 상관과 동료들을 만나고 저들의 신앙과 안전을 위해 비전2020 도고팀은 뜨겁게 기도하고 있다.

- 비전2020 도고팀장 김명심 권사
- 010-2002-6644
- 기도 대상자들

정건 경건웅 이진우 유동연 김은호 유성혁 소준
황수지(육사생도) 백승규 최윤학 이강현 유성근
심준규 허성강 장하랑 옥준용 김정균 소령
안지훈 중위 이연희 대위 이예희 하사 문창희 중사

동정

■ 떡 제공 : 안재선 집사 · 문수자 권사 가정
최명남 집사 · 김지은 권사 가정
(자녀 결혼을 감사하며)

전교인 성경읽기표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9월20일	월	슥 10-14		시 69-77	
9월21일	화	말 1-4, 마 1-3		시 78-85	
9월22일	수	마 4-5		시 86-98	
9월23일	목	마 6-8		시 99-105	
9월24일	금	마 9-11		시 106-115	
9월25일	토	마 12-13		시 116-119	
9월26일	주일	마 14-15		시 120-136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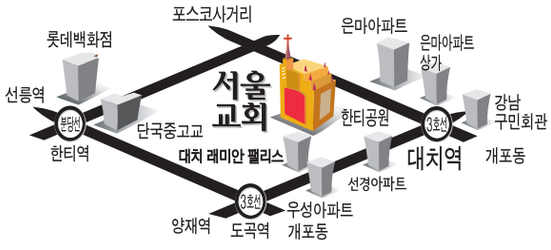
-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추석 귀경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고 가족에게 전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2. 피택집사, 피택권사들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 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3. 코로나19가 속히 소멸되게 하시고, 나라가 법과 질서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화 된 통일조국 이루어 주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Ⅲ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웨스트민스터 홀
수 요 예 배	Ⅰ 부 예 배	오전 11시	본당
	Ⅱ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웨스트민스터 홀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